

Hugo Häring의 '신건축(Neues Bauen)' 사상과 그 이론 발전의 상징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

김 경 진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임 석 재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휴고 헤링, 독일, 신건축, 유기적 기능주의, 상징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20세기 초 양식적 모방과 주관적 표현 양자를 거부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을 추구했던 모더니즘 운동의 선상에서, 휴고 헤링(Hugo Häring, 1882-1958)의 '신건축(Neues Bauen)'¹⁾은 유기체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기능'의 개념을 해석한 유기적 기능주의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1920년대 구체화된 근대 기능주의 논쟁이 형태와 내용(목적, 기능)의 관계를 다루는 여러 유추 전통에 근거해 다양한 개념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²⁾ 이중 생물학적 유추에 기반한 '유기적 조직'이라는 용어는 실상 대다수의 근대 건축가에게 기능과 동의어나 상관관계에 있는 용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상과 작업상에서 종종 단편적으로나 모순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 여타 건축가들과 달리, 헤링은 개체적 상황에 대한 완벽한 적응을 기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일생동안 자신의 일관된 기저로

추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당대에도 그렇거니와 오늘날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능주의자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헤링의 연구는 해외에서는 사료 접근이 용이한 독일을 위주로 일찌감치 진행되었으며, 피터 블룬델-존스(P. Blundell-Jones)의 영어권 연구는 헤링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³⁾ 반면, 국내에서 헤링의 기능주의 이론은 극히 최근에야 연구 발표되었는데, 지난 몇 년간 황보봉 씨의 발표가 이 부문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황보봉 씨의 연구는 1920년대 독일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와 유기주의 건축의 갈등을 바이센호프 전 사회의 추진 과정을 통해 논의한 「바이센호프 전 사회에 나타난 독일근대건축의 구조적 갈등」⁴⁾, 헤링의 '신건축' 사상을 그의 작품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휴고 헤링(1882-1952)의 건축이론에 관한 연구」,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과 이론 창조의 문제(1925-1934)」⁵⁾ 등 1920년대에서

1) 신건축(neues bauen)이란 단어는 1910-20년대 독일 근대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아방가르드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건축적 사상과 작업들을 지칭하는 데 쓴 보편적 용어였다. 그런데 휴고 헤링은 자신의 건축 사상에 특별히 이 명칭을 붙임으로써 그의 이론이 진정한 새로운 건축임을 강조했다.

2) Edward R. de Zurko, <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1957; Peter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1970-1950>, 1965; Larry L. Ligo, <The Concept of Function in Twentieth-Century Architectural Criticism>, 1974 등이 대표적이다.

3) 블룬델-존스는 2001년 런던에서 플로리안 베이겔(F. Beigel), 콜린 윌슨(Colin St. J. Wilson)과 함께 헤링의 후기 형태 개념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지기도 했다. ("London, Hugo Häring-Secret of Form", <Bauwelt>, vol. 92, no. 11, 2001, p. 3)

4) 황보봉, 하재명, "바이센호프 전사회에 나타난 독일근대건축의 구조적 갈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7호, 2001년 7월.

5) 황보봉, "휴고 헤링(1882-1958)의 건축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8호(통권 154호), 2001년 8월;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과 이론 창조의 문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8권 10호(통권 168호), 2002년 10월.

30년대 초까지 발표된 헤링의 초창기 이론과 작품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 명성을 얻은 근대 건축가들의 건축 사상에 대해 발표되고 있는 국내 연구 수요에 비하면, 헤링의 이론이 가진 철학, 미학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 고찰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초기 유기적 기능주의 관점이 1940년대에 이르러 이론적 심화를 거치면서 현상학적 장소론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는 상징적 성격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하다.

헤링의 이론이 이미 1925년 발표한 그의 대표적 인 소고 「형태를 향한 길(Wege zur Form)」에서 유기적 역사관, 디자인 창출 원리, 기능과 표현의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핵심적 사상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철학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그는 초기 기능주의 사상에 내포된 환원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당대 독일의 상징론 및 존재론적 철학 사상에 비견되는 독특한 형태론을 확립하게 된다. 이는 디자인 과정에서 유기체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유기체작업(Organwerk)’으로부터, 2차대전 이후 사물의 법칙을 실존적으로 상징화하려는 ‘형태작업(Gestaltwerk)’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이는 과거의 기능적 관점과 단절하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헤링의 유기체적 기능의 해석에 본래적으로 내재된 관념적 성향이 자기반성을 거치면서 보다 철학적인 관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1925-34년까지의 초창기 논문들과, 전쟁 이후 발표된 1943-54년까지의 후기 논문들에서 개진된 사상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⁶⁾ 주로 초기 기능주의관에 암시된 상징적 측면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이 헤링의 실제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의 <Gut Garkau>(1922-1926)를 통해 살펴보겠다.

헤링의 디자인 이론이 가지는 이러한 상징학적 측면은, 특히 그의 동시대 개진된 에른스트 카시러(E. Cassirer, 1874-1945)의 상징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를 구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호

(sign)적 사고와 달리 유기적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상징론은 헤링의 유기적 기능주의를 분석하는 준거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맥락은 ‘신건축’이 결코 고립된 사상이 아니며, 당대의 사상적 전통과 연속적 선상에 위치한 것임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이로써 헤링이 주장한 기능성을 상징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의 건축관이 지니는 오늘날의 대안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상징의 개념 및 예술적 기능의 이해

헤링의 ‘신건축’ 사상에 나타나는 형태와 기능의 상징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으로 상징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과 예술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건축 비평에서 논의된 기능의 개념을 구조적 분절, 물리적 기능, 심리학적 기능, 사회적 기능, 그리고 문화·실존적 기능으로 분류한 래리 리고(L. L. Ligo)⁷⁾는 건축의 문화·실존적 기능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화·실존적 기능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건축이 문화적 신념 혹은 가치와 관련하여 무엇을 ‘행하는가’에 대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는 기능을 ‘지시’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반영(reflect)’나 ‘표현(express)’보다는 ‘상징화(symbolize)’란 단어가 적합할 것이다.”⁸⁾

이와 같이 그는 ‘상징(symbol)’의 역할을 중요시 했는데, 상징은 그 너머의 무언가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바에 ‘참여하는’ 것으로서⁹⁾, 이 같은 개념은 건축이 어떻게 문화적 가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해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화’를 통해 건축이 수행하는 문화·실존적 기능의 특징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사고와 행동의 관습적 패턴에 도전하는 능력에 있다. 즉, 사회적 발전과 독립되어 있는 가치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대안적 표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7) Larry L. Ligo, <The Concept of Function in Twentieth-Century Architectural Criticism>, UMI Research Press, Michigan, 1984(1974)

8) Ibid., p. 77

9) Paul Tillich, “The Nature of Religious Language”, <Theory of Culture>, New York, 1964, p. 54 (Ibid., p. 78 재인용)

6) 그의 논문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H. Lauterbach & J. Jöedicke, Edit., <Hugo Häring: Schriften, Entwürfe, Bauten>, Karl Krämer Verlag Stuttgart, 1965에 수록된 것이다. 이하 L & J, edit.으로 통칭한다.

선입견과 집단사고(group-think)를 벗어나 자유와 더 큰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¹⁰⁾

위에서 언급된 상징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의미와 형식의 관계를 다루는 예술 분야에서 특히 중요시되어 온 속성이며, 플로티누스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의미와 감각경험, 정신과 자연, 특수와 보편의 양극성을 화해시키는 측면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초 에른스트 카시러는 이것을 의미가 상징을 통해 인간의 문화 세계로 편입되는 '기능(관계)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상징의 가치를 근대적으로 재평가했다.¹¹⁾ 그의 연구를 통해 헤링의 건축 사상을 이해하는 준거로서 들 수 있는 상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징은 감각형식 속에서 의미(meaning)를 드러내는 일체의 현상으로, 그 의미는 다층적이며 유일한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와 동일시 될 수 없다.¹²⁾ 카시러가 "기호가 존재의 물리적 세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면, 상징은 인간의 의미 세계를 구성"¹³⁾한다고 밝혔듯, 이 문제는 상징과 기호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소쉬르(F. de Saussure, 1857-1913)의 언어학적 고찰 이래 '기호(sign)'는 근본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의를 지칭하기 위한 '경계적 구실'이며, 그 기표(signifiant)와 기의(sinifié) 간 관계는 발생적 연원

에서 '자의적(arbitraire)'이라는 것이 밝혀졌다.¹⁴⁾ 따라서 기호의 기표는 무한히 열려 있는 반면, 기의는 제한적이고 기호적 표현체계 외에도 사고의 다른 방법에 의해 포착이 가능하다.

반면, 상징은 의미의 전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매체 자체가 본래적으로 관념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기호와 달리 구심적이다.¹⁵⁾ 그러므로 상징의 기의는 상징화 이전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상징에 의해 객관화되는 현실성은 생성과 과정의 이념적 목적 자체이지 절대적 체계의 완성은 아니다.¹⁶⁾

이러한 의미와 형식간의 구심성은, 정신적 의미와 물질적 담지자간에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상징의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해준다. 유기적 통일성은 19세기 독일·영국의 낭만주의적 직관주의와 함께 '안으로부터 성장하고 전개되는 하나의 생명력' 등 예술작품의 중요한 속성으로 자리 잡았다.¹⁷⁾ 실증주의 시대를 거친 카시러의 상징철학은 그와 같은 속성을 인정하되 낭만주의의 초월적 관념성을 제거하고, 어디까지나 내재적 차원에서 정신의 사유 기능이 '물질적 담지자'를 통해 구체적 보편성을 인식하는 감각적 차원을 강조했다.¹⁸⁾

구체적인 의미 영역을 드러내는 문화적 원리인 유기적 통일성은 그대로 상징의 예술적 설명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전통적 모방론이나 베네데토 크로체(B. Croce), 콜링우드(R. G. Collingwood) 등

10) Ibid., pp. 78-79 참조

11) 에른스트 카시러는 이전까지 낭만주의적으로 설명되어 오던 상징의 속성을 19세기 말 실증주의와 독일 신칸트학파의 영향 하에 재해석, 의미를 인간의 문화적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감각적 형식으로서 상징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했다. 그의 주저 <상징형식의 철학(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I권 언어: 1923, II권 신화적 사유: 1925, III권 인식의 현상학: 1929)은 헤링과 동시대 개진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적 사유의 근대적 전통을 공유한다. 그의 상징철학은 이후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 1884-1962)의 인식론, 끌로드 레비-스트로스(C. Lévy-Strauss, 1908-)의 인류학, 질베르 뒤랑(G. Durand, 1921-)의 신화비평론 등의 상징 연구의 분야들에 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2) 랄랑드(A. Lanade)는 상징을 "부재해 있거나 지각하기 불가능한 그 무언가를 자연스러운 관계에 의해 표현해내는 구체적인 모든 기호", 융(C. G. Jung)은 "비교적 미지의 것이어서 보다 확실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지칭할 수 없는 대상을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정의는 낭만주의 시대 이후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상징에 내려진 고전적 정의들이다. (G. Durand, <L'imagination symbolique> (<상징적 상상력>, 진형준 역, 문학과 지성사, 1994(1964), pp. 15-16 참고)

13)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화철학서설>, 최명관 역, 서광사, 1988(1944), p.59)

14) Gilbert Durand, <L'imagination symbolique> (<상징적 상상력>, 진형준 역, 문학과 지성사, 1994(1964), p. 12 참조)

15) 상징을 뜻하는 독일어 'sinnbild'는 sinn(意)와 bild(像)의 결합어이다. 상징이란 용어는 항상 두 개의 반쪽, 즉 기호와 의미의 결합을 뜻한다. (<상징적 상상력>, p. 18)

16) E.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I, 1923, p. 10 (민혜란, "E. 카시러의 예술상징형식에 관한 고찰", 홍대 미학과 석논, 1987, p. 33 재인용) 이러한 상징의 특성을 카시러는 신칸트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했다. 그는 인식 그 자체가 인식의 대상을 구성한다는 칸트의 기본 전제를, 인식이 감각적 표현과의 불가분의 연관성 속에서 기능하는 것이지 결코 순수인식의 활동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발전시켰다. 즉, 인식의 대상은 상징에 의해 창조된다. (Yevgeny Basin, <The Semantic Philosophy of Art> (<현대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민형원 공역, 예전사, 1996(1979), p. 193)

17) 예술작품의 형식은 '안으로부터 펼쳐지나' 기계적 형식은 재료의 본질과의 연관 없이 단지 하나의 우연적 첨가물로서 재료에 덧붙여진다고 주장한 쉐렐(A. W. von Schlegel)과 콜러리지(S. T. Coleridge) 참조.

18) E. Cassirer, <Substanzbegriff und Funktionsbegriff>, 1910, pp. 20-21 (민혜란, p. 13 재인용)

의 표현론과는 다른 것이다. 카시러에 의하면, 상징으로서의 예술은 단지 주어진 현실에 대한 재생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 생활에 대한 객관적 관점에 이르게 하는,' 또는 '자연(현실)을 발견'하게 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예술을 통해 자연을 발견하는 방식은 과학자가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이 외부 세계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 규칙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현실의 단순화와 연역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반면, 예술 작품은 '옹축과 집중의 행위'를 통해 '현실의 강렬화'를 추구한다. 즉, 예술로서의 상징화는 현실의 빈곤화인 '추상'을 지양하고 사물의 다양하고 생성적인 양상을 인식하는 행위이며, 인간은 이를 통해 '통일성 속의 다원성'을 구현하고 개개의 삶의 신선함과 직접성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는 삶 자체의 근본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⁹⁾ 그런데 이러한 예술적 '발견'은, 상징이 기호의 지시적 인식처럼 직접적으로 기표 너머에 주어진 어떤 실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관념의 원천인 이상, 사실상 이미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발견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직관적·창조적 능력에 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위와 같은 관점에서 상징은 일종의 신화적 기능이라는 세 번째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최초로 상상적인 세계로서 경험을 형성하고 실체들을 고정시키는 기능이다.²¹⁾ 카시러를 통해 근대는 신화를 의미의 담지자와 의미의 혼용이 완전한 동일성을 이루는 하나의 상징적 형식으로, 그리고 세계 인식의 최초의 시도이자 최초의 미적 환상의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특수한 통일체로서 재평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화는 한 문화의 역사적 출발점이자 예술의 미분화적 원형으로서 한 문화의 동질적 이해방식을 수립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그 창조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의 긴장과 화해를 변증법적으로 수행하는 상징의 사회적 기능이다.²²⁾

사상적 전통에서 보자면, 헤링과 같은 유기적 기능주의 사상에서는 관념론적 사유방식의 계승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흡수한 상징 개념들을 기능으로부터 형태를 도출하는 과학적 프로세스라는 근대적 개념으로 재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헤링이 동시대 카시러의 이론이나 상징 이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한 적은 없더라도,²³⁾ 뒤에서 살펴볼 건축 기능에 대한 다층적 해석, 디자인 방법론으로서의 유기적 프로세스로부터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건축 형태에 대한 강조 및 신화적 사유의 가치의 발견이라는 헤링의 사상적 여정은 상징적 사유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술한 상징 개념들은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준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유기체작업(organwerk)과 기능의 상징적 해석(1924-1934)

3-1. 유기적 기능주의: '내적 통일성' 개념

휴고 헤링의 '신건축' 사상 계승을 자처하는 한스 샤로운(H. Scharoun, 1893-1972)은, 1933년 전까지 만해도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던 헤링의 작품이 그 이후로는 언급된 적이 없으며, 그가 은폐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⁴⁾ 특히,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1887-1966)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 그리고 지그프리트 기디온(S. Giedion, 1888-1968)이 이끄는 CIAM의 득

19) E. Cassirer, <인간이란 무엇인가>, pp. 221-223 참고

20) 사실상 '발견'과 '창조'라는 상이한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카시러의 입장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공전 및 피히테의 형이상학적 이론의 영향 아래 인식과 창조를 동일시한 낭만주의의 상상력 이론에서 다시 한번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Monroe C. Beardsley,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미학사>), 이성훈·안원현 공역, 이론과 실천, 1995(1966), p. 414 참고)

21) Susanne K. Langer, <Problem of Art>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1984, pp. 109-120 참고) 카시러의 생각을 예술철학적으로 보다 구체화시킨 수잔 랭거(S. K. Langer, 1895-1985)는 이를 "상징은 관념들을 분절화시킨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수잔 랭거는 예술 상징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카시러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22) 화이트헤드(A. N. Whitehead)가 강조한 예술의 사회적 상징작용이다. (Y. Basin, 같은 책, p. ppl70-171 참고)

23) P. Blundell-Jones, <Hugo Häring: The Organic versus the Geometric>, Edition Axel Menges, London, 1999, p. 182 한편, 휴고 헤링의 제자이자 조수였던 마고트 아셴브레너(M. Aschenbrenner)는 카시러의 밑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으며, 헤링에게 당대의 철학적 기저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녀는 휴고 헤링의 말년 원고들을 편집하여 'Fragmente'(1968)라는 제목으로 그의 유고집을 출판했으며, 헤링의 사고방식을 카시러의 이론과 최초로 접목시킨 이들 중 하나이다.

24) J. Christoph Bürkle, <Hans Scharoun>, Artemis, London, 1993, p. 17

세(1928) 이후 헤링이 근대건축 운동의 전개에서 그 지정학적 위치를 상실한 듯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국제주의적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경향과 함께 먼저 부르띠리즘 운동 등이 헤링의 재료에 대한 표현적 사용을 주목하면서 그는 재평가받기 시작했다.²⁵⁾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관점의 재평가는 헤링의 건축을 1910년대 표현주의 계열 건축과 함께 취급함으로써, 그의 '신건축' 사상이 지닌 독특한 기능주의 관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²⁶⁾ 이에 대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헤링 연구는 1920년대 추상 기하학을 지향한 합리주의 노선과 차별되는 유기적 기능주의로서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⁷⁾

사실 헤링의 유기적 기능관은 1920년대 당대에 이미 주목받고 있었는데, 아돌프 베네(A. Behne, 1885-1948)의 <근대 기능적 건축(Der Moderne Zweckbau)>(1926)²⁸⁾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베네는 자신의 시대가 지나치게 역사적 형식주의(Formalism)에 휩쓸리고 있으며, 이에 고전적 법칙의 강요와 대비되는 유기적 통일성을 획득한 기능주의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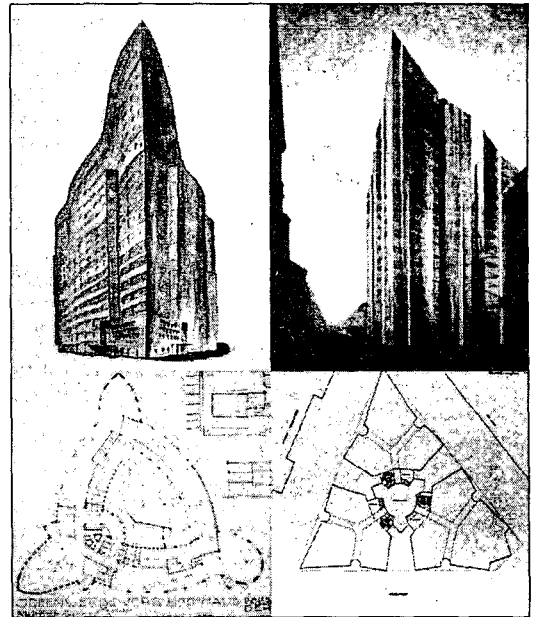


그림1. 헤링(좌)과 미스(우)의 <프리드리히가 오피스 계획>, 1922. 투시도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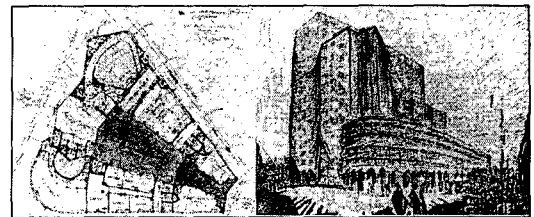


그림2. 샤로운, <프리드리히가 오피스 계획>, 1922. 평면과 투시도

25) 헤링을 반(反)합리주의자(anti-Rationalist)로 파악한 레이너 뵘의 <가르카우 농장>에 대한 평가 참조.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92(1960), p. 83

26) 헤링의 표현주의 건축으로 이해하는 대표적 저서로는 N.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1960); W. Pehnt, <Die Architektur des Expressionismus>(1973); C.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1973) 등이 있다. 한편, 기디온은 그의 <Space, Time, and Architecture>(1941)과 그 개정판에서 지속적으로 헤링을 누락시켰다.

27) H. Lauterbach & J. Joedicke, edit., <Hugo Häring: Schriften, Entwürfe, Bauten>(1965); J. Posener, "Häring, Scharoun, Mies, and Le Corbusier", <From Schinkel to Bauhaus>(1972); P. Blondell-Jones, <Hugo Häring>(1999) 등을 비롯, 국내에서는 앞서 언급한 황보봉 씨의 연구 발표가 대표적이다.

28) Adolf Behne, <Der Moderne Zweckbau>, Drei Masken Verlag, Munich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rans. M. Robinson, The Getty Research Inst.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6(1926)) 이 저술은 20세기 초 유럽의 근대 건축 논쟁이 '합리적(rational)' 그리고 '시적(poetic)'이라는 이중적 접근(E. R. De Zurko)에서 벌어졌음을 최초로 인식한 근대건축 비평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는 1920년대 베를린 예술노동자평의회, 노베버그그룹, 테어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르 코르뷔제와 미스를 기하학적 전형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자, 헤링과 샤로운을 유기체 원리를 추구하는 기능주의자로 파악했다.

직선을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상징으로 여긴 데 오 반 뒤스부르크(T. van Doesburg)와 달리, 베네는 인간이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공간의 궤적을 중요한 기능조건으로 파악한 점에서 '곡선(curve)'을 옹호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건축적 형태는 '역동적(dynamic)', 즉 동선의 흐름이 반영된 자유로운 형태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²⁹⁾ 따라서 그가 헤링과 샤로운의 <프리드리히가 오피스 계획(Friedrichstraße office project)>(1922)³⁰⁾처럼 동선의 흐름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29) "장방형의 공간과 직선은 기능적이 아니라 기계적인 창조물이다. 생물학적 기능에 근거하여 작업을 한다면 장방형의 공간은 부조리하다. 이러한 공간의 네 모서리는 사용되지 않는 죽은 공간이다." (Ibid., p. 121)

30) 이 프로젝트들은 1921년 말 미스, 헤링, 샤로운을 포함하여 14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현상설계에 제출한 안이다. 미스와 헤링의 안은 통상 1920년대 초 두 사람이 미스의 사무실을 갈

건물들을 기능적 건축으로 예시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곡선은 낭만주의적 임의성에 근거한 헤르만 핀스테를린(H. Finsterlin)의 곡선과 달리 내적인 기능 논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당연하다.[그림 1, 2]

한편, 기능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건물의 기초가 계속적으로 새롭고 차별적이라면 그들이 자신의 작업을 영원한 '자연(nature)'에 근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상 그들의 이상은 자연의 유기적 구성요소로서 총체적으로 융합되는 건축에 있다³¹⁾고 말한 점에서, 베네는 헤링의 유기적 기능주의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덧붙여 그는 이들 유기적 기능주의자들이 공리주의자들(utilitarians)처럼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은 매우 상이한 태도에서 도출되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유기적 기능주의의 낭만주의적 성격을 시사했다. 그에 따르면, 공리주의자들은 '이 경우 나에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지만 기능주의자들은 '원리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즉, 기능주의의 건축적 관심은 윤리적·사회적 목적 및 형이상학적 문제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가장 '객관적(sachlich)' 입장을 취하는 경우조차도 합리주의자보다는 낭만주의자로 쉽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근대건축에 대해 베네의 관점이 갖는 독특함은 이러한 기능주의 및 합리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먼저 헤링과 마찬가지로, 베네는 합리주의 건축이 기술에 비견되는 미학적 간명함과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그 구성요소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추상 기하학이 건축의 조직만이 아니라 형태와 공간처리의 윤곽까지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동하는, 즉 '규범(order)'에 얽매이는 형식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규범에 관여하는 건축가는...기

능주의자가 근본적인 의미를 두지 않는 요소, '유희(play)'를 강조"³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순수한 기능주의는 하나의 생물체에서 각 기관들이 그 생물체의 삶을 위한 내적 요구에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과 같은 유기체적 삶의 원리를 최상의 본보기로 삼는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개별적 적합성을 지향하는 이러한 방식이 극단적으로 심화될 경우, 즉 건물이 하나의 생명체에 필적하는 내적 유기성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이를 위험을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베네는 헤링의 유기적 해법이 개별적 공간의 창조에는 적합하나, 그 기능 총족의 내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특성상 '대량생산'과 '표준화'를 요구하는 당대 사회적 요구와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³⁴⁾

그러나 여기서 베네의 지적이 일견 타당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첫째 그가 말하는 건축의 내적 통일성이 지나친 생물학적 유추의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건축의 사회적 관계란 그의 생각처럼 대량생산과 관련한 표준화 및 합리화라는 초기 근대산업사회의 경제적 요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초기 근대산업사회에서는 한 건물의 특수한 내적 본질을 반영하려 한 헤링의 건축관이 개인주의적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후기산업사회가 진척됨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 앞에서는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베네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유기적 기능주의의 극단적인 '내적 통일성'은 역설적으로 헤링의 건축관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기능의 상징적 관계 및 현시점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그 예술적 가치를 암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주로 헤링의 후기 사상에서 카시러와의 유사성을

33) Ibid., p. 133. 헤링이 1920년대 르 코르뷔제와 미스의 기하학적 사고를 끊임없이 경고한 것은 이같은 차원에서였다. "기하학 혹은 수정체에 근거한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언제나 독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코르뷔제)." (Hugo Häring, "Wege zur Form", <Der Form>, vol. 1, 1925. 10. in L&J edit., p. 14)

34) Ibid., pp. 124, 128 참조. 베네의 분석을 수용한 위르겐 요디케는 유기적 기능주의의 이러한 특징을 '완벽한 적용'과 '일회성'이라고 표현했으며, 반면 합리주의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규범'의 성취를 추구한 입장으로 해석했다. Jürgen Joedicke, <Architektur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Karl Krämer Verlag Stuttgart (<20세기의 건축역사>, 김정환·이병욱 공역, 이집, 2001(1998), p. 208)

이 쓰면서, 헤링이 미스에게 미친 표현주의적 영향의 측면에서 비교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는 미스의 기하학적 형태와 헤링의 유기적 형태 대비를 강조하는 편이 타당하다.

31) Ibid., p. 127

32) 이에 비해 공리주의자들은 수단을 목적과 동일시하며, 대중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목적을 취급함으로써 쉽게 유물론자(materialist)가 된다는 것이 베네의 생각이다. (Ibid., p. 122)

찾는 블룬델-존스와 달리, 헤링의 초기 기능주의 이론은 그 개념적 특징상 이미 상징적 건축관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의 1920-30년대 발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3-2. '성과-형태(Leistungsform)'의 상징적 성격

초기 근대 건축가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비판 기반 위에서 역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은 선언문이나 저술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법을 구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기능'은 그러한 디자인에 대한 객관적 근거라고 여겨졌다. 헤링의 초창기 논문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의 문제(Probleme des Bauen)」(1924)나 「기능적 건축: 가르카우 농장/ 외양간(Funktionelles Bauen: Gut Gakau/ Das Viehhaus)」(1925)를 보면,³⁵⁾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기체작업(Organwerk)'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1925년도 논고 「형태를 향한 길」도 먼저 기능적 요구를 표현적 요구의 우위에 두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기능적 요구가 "이미 우리의 표현을 향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삶에 의해 결정되는 기능적 형태는 본질적, 비시간적, 익명적인 반면, 표현적 형태는 인간정신의 소산이며 특정 문화와 관련되어 시간,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 헤링은 그동안 기하학에 경도되어 온 표현적 형태를 삶·창조·운동·자연에 관계하도록 하여 자연의 방침을 따르는 기능적 형태와 일치되어 감으로써, 역사적으로 계속 충돌해왔던 이 두 가지 형태 욕구를 서로 양립시키려 했다.³⁷⁾

이러한 헤링의 건축적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건물 혹은 인간이 만드는 모든 도구들은 그들이 삶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자신의 컨텍스트로부터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이를 위해서는 형태상의 선(先)개념—기하학—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유기성 개념은 단지 내부로부터 외부로 만들어지는 유기적(organisch)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건물은 생물학적 자연으로서의 유기체 그 자체(organhaf, organ-like)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집은 '인간의 두 번째 피부, 즉 신체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³⁸⁾ 그러므로 건축가는 그의 건물이 서비스하는 삶의 과정을 잘 인식하고, 이로부터 형태를 도출해내야 한다. 즉, "형태를 부과하기(zwangform)보다 형태를 발견하는 것(formfindung)을 따른다면... 우리는 대립 대신 자연과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헤링은 이러한 형태를 'Leistungsform(성취로서의 형태)'이라고 불렀다.

이 '성취-형태(leistungsform)'의 개념이야말로 그의 유기체작업의 핵심을 보여준다. 'leistung'은 영어의 'achievement', 즉 'result of labor'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⁴⁰⁾ 헤링은 같은 의미로 종종 'Lebenserfüllung(life fulfillment, 삶의 충족)', 'Leistungserfüllung(performance fulfillment, 수행 충족)'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⁴¹⁾ 이러한 측면에서의 서비스 충족은 단순히 건물의 실용적 효율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헤링은 생각하기에 각 건물이 수행하는 기능은 그 자체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건물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는 발견되어지고 충족되어야 하는 '본연의 법칙'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형태를 향한 길'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자연의 사물들이 '각기 자신의 내적 계획(individuellen planbegriffen)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는 길'⁴²⁾이다.

"...자연과 같이 행동해야 함을 자각하고, 사물이 그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질서 지워야 함을 자각하는

35) H. Häring, "Probleme des Bauen", <Der Neubau>, vol. 17, 1924. 10. in L&J edit., pp. 14-15; "Funktionelles Bauen: Gut Gakau/ Das Viehhaus", <Die Form>, vol. 1, 1925. 10. in L&J edit., p. 17

36) "Wege zur Form"(1925) in L&J edit., p. 13

37) 문화가 기하학적 세계관에서 유기적 세계관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헤링의 사상은 슈펜글러(O. Spengler, 1880-1936)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헤링의 유기적 역사 인식에 당대 레오 프로베니우스(L. Frobenius)의 인류학,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상대성 이론 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 Blundell-Jones, "Häring's history of architecture", ch. 9, <Hugo Häring>, pp. 90-98; 황보봉,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과 이론 창조의 문제", pp. 108-111

38) H. Häring, "Form der Leistungs-Erfüllung"(1932) in U. Conrad, p.126

39) "Wege zur Form" in L&J edit., p. 13

40) Julius Posener, "Häring, Scharoun, Mies, and Le Corbusier", <From Schinkel to Bauhaus>, Lund Humphries for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London, 1972, p. 33

41) <Hugo Häring>, p. 211 참조

42) "Wege zur Form" in L&J edit., p. 13

것, 그러한 드러냄(entfaltung)은 전체로서의 삶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전체가 우리의 삶의 형태(gestalt)이다.”⁴³⁾

헤링 자신이 ‘유기체작업’을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형태 디자인의 과학적 프로세스를 지향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념들은 전적으로 객관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뉘앙스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만족을 위한 유용성만을 건축이 구현해야 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헤링이 형태의 상황조건으로 파악하는 삶의 비밀과 정체성, 자연의 본질과 실재로서의 기능은 객관적이고 선형적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가시적이고 내재적인 의미의 성격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유기체작업’을 통해 형태로서 드러나는 방식은 기의가 내재적 의미로서 기표와 불가분의 통일성을 이루며 형태화되는 상징적 과정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은 호레이쇼 그리너(H. Greenough, 1805-1852)의 기능주의⁴⁴⁾를 비롯하여, 루이스 설리번(L. H. Sullivan, 1856-1924),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 L. Wright, 1867-1959)로 이어지는 미국의 유기적 건축 사상에서도 발견되는 성격으로, 그들의 기능 개념 또한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 분명하게 정의되는 공리적이고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⁴⁵⁾ 아돌프 베네가 지적했듯, 하나의 건물 업무의 본성으로부터 자라나 그 자신의 룰을 따르는 ‘내적 통일성’이란 개념은 이미 생물학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자연세계에 대한 신비적인 인식을 전체로 하고 있다. 물론, 그리너나 설리번의 기능적 관점이 헤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⁴⁶⁾ 사실 상징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의 공통점은 자연에 대한 관념론적 해석을 수반하는 유기체 이론들의 사상적 귀결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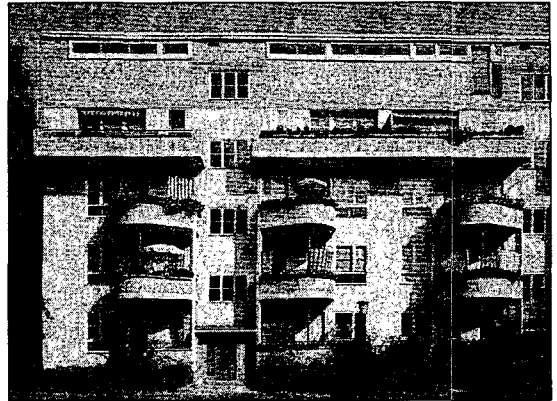


그림3. 헤링, <지멘스타트 집합주택>, 1929-31

그러므로 헤링은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을 일련의 과학적 측량으로 객관화할 수 있다고 여긴 하네스 마이어(H. Meyer) 등의 환원적 기능주의에는 부정적이었다. 그가 1929년 RFG 심포지엄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기능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이기보다는 다층적인 문화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⁴⁷⁾

같은 맥락에서 그는 1929년 CIAM 회의에서 대량생산 주택의 표준화를 위해 논의된 주거의 ‘최소-실존(existenzminimum)’ 개념에도 반대했는데, “표준화는 각 단위(zelle)를 한 무더기로 취급하고 그 특성을 죽이며, 획일성과 반복을 강요함으로써

43) Ibid., p. 14

44) Horatio Greenough, <Form and Function: Remarks on Art, Design, and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형태와 기능: 예술·디자인·건축에 대한 소견>, 이종건 역, 기문당, 1987(1957))

45) 이들의 유기체 사상에서는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 超絶主義) 전통에 기반한 독특한 자연 해석의 영향이 발견된다. 초절주의는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철학자들과 작가들이 벌인 운동으로, 모든 피조물의 본질적 단일성, 진리를 밝힘에 있어 논리나 경험을 넘어선 통찰력의 우월성을 믿는 포괄적인 관념론적 사상체계이다. 초절주의적 자연과 미국의 유기적 건축에 대한 연구는 Narciso G. Menocal, <Architecture as nature: the transcendentalist idea of Louis Sulliva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ondon, 1981 참조

46)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과 이론 창조 의 문제”, p. 111. 그러나 헤링은 당대 독일공작연맹 멤버이자 유기적 도시 계획가였던 테오도르 피셔(T. Fischer)의 사상을 통해 미국과 영국의 기능주의 및 수공예운동,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의 유기체 사상과 고딕건축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흡수했을 것이다.

47) RFG는 1929년 독일에서 주거의 대량 건설과 관련한 경제적 평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행정조직이다. “주택에서 무엇이 기능적 효율성을 구성하는가에 대해 여전히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경제적 변화와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새로운 가구 배치 등으로 인해... 기능의 정의가 재평가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태도와 문화적 개념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돌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그가 주거의 기능을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무엇이 그런 기능성을 구성하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상황을 깨닫는다.” in a report published RFG of contribution to Technische Tagung, Berlin, 15-17 April 1929, ‘Gruppe 1: Grundrissgestaltung und Hauswirtschaft’, p. 3 (<Hugo Häring>, p. 81 재인용)

그들을 황폐화”⁴⁸⁾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대량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문화의 최종 목표는 아니며, 각 단위의 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지멘스타트 집합주택(Siemensstadt housing)>(1929-31)은 동시대 건축가들의 집합주택에서 자주 나타나는 백색건축의 미학적 단순성 대신, 프러시안 월(Prussian Wall)⁴⁹⁾의 충전을 이용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조적 분절 및 재료의 텍스처(texture)의 탐구, 원형테이블의 면적을 고려한 곡면 발코니와 이를 통한 파사드의 리드미컬한 표현 등을 통해 어셈블리 형식에 대한 고찰을 넘어서 집합주택의 형태적 질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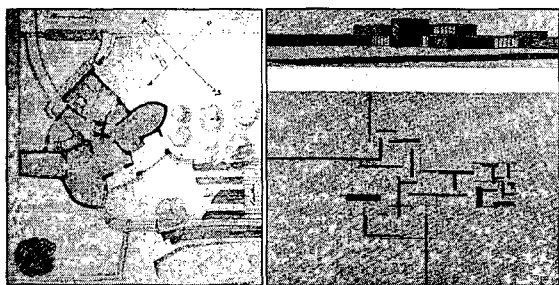


그림4. 헤링, <빌라계획>, 그림5. 미스, <벽돌전원주택 계획>, 1923. 배치도와 평면

미스 반 데어 로에와의 비교 또한 헤링의 기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21년 헤링이 미스의 24 am Karlsbad 사무실에 작업실을 차린 이후, 둘은 개인적인 친분을 다짐과 함께 건축의 기능과 그 형태적 표현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다. 미스는 건물의 기능이 몇 가지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헤링과 일치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어떠한 규정된 용도에도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헤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형태 표현을 추구했다.[그림 4, 5] 헤링의 유기체작업은 '성취-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가능한 한 풍부한 상황 조

건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형(type)을 설립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건물의 요구 사항이 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미스와 같이 추상성을 지향하는 입장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반(反)추상적 사고는 예술의 기능이 삶과 실제의 응축 및 강렬화에 있다고 보는 상징적 사고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카시러의 공간 개념에 따르면, 추상적 기하성으로 대변되는 과학적 공간과 달리 “미적 공간은 참된 ‘삶의 공간’이다. 그것은 순수 사유의 도움을 받아 구성되는 이론적 공간과 달리, 순수 정서와 상상력을 토대로 형성된다.”⁵⁰⁾ 정확히는 카시러의 공간 해석은 건축적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 개념에 의거하여 예술의 모든 형식에는 그 속에 객관화된 ‘의미’가 특별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적 공간과 시간의 구체성을 결정해주는 것도 바로 그 의미라는 개념은 거주자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조건을 요구한 ‘유기체작업’을 상징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헤링의 유기적 기능주의에서는 상황조건들이 명백하고 분명할수록 형태 도출의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헤링이 주로 동선이나 조명, 환기 등 검토나 진술이 용이한 조건들로 디자인 과정을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헤링과 물론 다른 유기적 기능주의자들 역시 인식했듯, 건물이 인간적인 요구에 부합하려 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란 더욱 비결정적이고 진술하기 어려워지는 다층적 의미를 띠게 된다. 그러한 의미로부터 ‘성취-형태’를 ‘발견’하려는 헤링의 ‘유기체작업’은, 결국 어떤 절대적이고 실재적인 조건에 따르는 자동적인 과정이기보다는 그 건물이 수행하려는 과정들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행위, 혹은 ‘발명하는(invent)’⁵¹⁾ 행위를 뜻함에 다름 아닌 듯하다. 이 ‘발명’의 의미는, 실재란 상징형식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술 역시 발견과 창조가 혼용되는 것으로 귀결된⁵²⁾ 카시러의 예술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헤링의 1920년대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가르카우 농장>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그 기능적 설명

48) “Probleme des Bauen” in L&J edit., p. 15. 사실 이 논문은 첫머리에서 창문의 기능을 빛, 환기, 전망이라는 3가지 요소로 정의함으로써, 기능의 상징적 해석보다는 초창기 헤링의 실증적 입장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

49) 65mm 피복방식으로 이루어진 RC 벽돌조 방식의 하나이다.

50) E. Cassirer, “Mythischer, ästhetischer und theoretischer Raum”, 1931 (Y. Basin, 같은 책, p. 215 재인용)

51) J. Posener, Ibid., p. 36

52)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p. 414

에 숨겨진 상징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실제적인 작업물도 파악할 수 있다.

3-3. 가르카우 농장(Gut Garkau)

헤링의 <가르카우 농장>(1922-1926)은 그 이전까지의 다소 역사주의적인 작업 이후에 실제로 지어진 최초의 프로젝트이며, 그의 근대적 탐구의 핵심이 실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1925년 「형태를 향한 길」과 함께 발표한 소고 「기능적 건축: 가르카우 농장/ 외양간」⁵³⁾을 보면 그가 이 작업을 ‘성취-형태’를 이루어낸 기능적 실례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농장은 그 목적에 있어 명백하게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측면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헤링은 프로젝트를 의뢰 받은 1922년부터 1926년까지 농장주택을 포함한 전체적인 단지를 단계적으로 계획해갔는데, 이중 외양간, 헛간, 농기구 차고만이 1925년에 지어졌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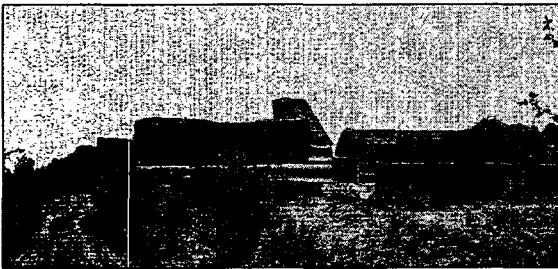


그림6. 헤링, <가르카우 농장>, 1926.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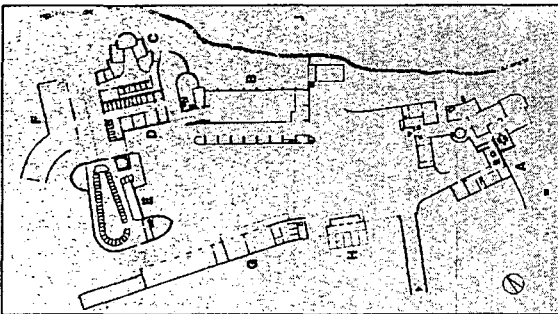


그림7. <가르카우 농장> 배치도.

A. 농장주택 B. 헛간 C. 돼지 사육장 D. 마구간 E. 외양간 F. 비료저장고 G. 차고·도구창고 H. 닭장 J. 호수

가르카우 농장의 대지는 독일 뉘북(Lübeck) 근처에 있는 교외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호수에 면하고 서쪽으로부터 농장의 북쪽과 남쪽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길에 둘러싸여 있는데, 배치 계획을 보면 그가 각 건물의 위치와 상호관계, 건물들에 둘러싸이는 공간, 이들의 내적인 작업 수행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농장의 주택과 사무소는 남쪽 경계를 이루며 펼쳐져 있고, 북으로는 외양간이, 서쪽은 닭장과 차고·도구창고가 경계를 형성한다. 농장에서 가장 큰 건물인 헛간은 대지와 호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농장 내부의 공간감을 위해 외양간의 남쪽 구내를 향한 수소 사육실과 건초실(root-celler)은 1층으로 하고 헛간도 구내 쪽으로 1층 높이의 돌출부를 두어 스케일감을 줄인 반면, 북쪽 바깥에 반원형으로 튀어나온 외양간의 송아지 분만실이나 헛간의 호수 쪽 벽과 지붕은 최고 높이로 스케일이 큰 매스를 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그림 6, 7]

그러나 이 농장 건물들 중에서도 특히 <외양간(Viehhaus, cow shed)>은 그 배(pear) 모양의 형태를 통해 독특한 평면 구성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다가 잠시 잊혀졌던 이 건물은 1980년대 초에 손질되어 현재는 돼지 사육장으로 바뀌 쓰이고 있다. 헤링은 그의 글에서 외양간의 디자인 과정에서 내린 모든 결정을, 외양간으로의 출입, 사료 배급 과정, 하나의 동선으로 이루어지는 분노 처리, 젖소들의 간격유지를 통한 위생 강화, 자연적인 환기와 조명 등 정확하게 해석된 상황에 대한 결과로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 건물의 형상은 건물이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부응하는 형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달한 것”⁵⁵⁾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블룬델-존스나 포제너가 지적했듯, 이 설명은 주로 단면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외양간의 배 모양이 도출되는 평면 계획을 뒷받침하는 논의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⁶⁾ 즉, 위의 글에서 강조한 건물의 실용적 조건들은 배 모양이

53) “Funktionelles Bauen: Gut Garkau/ Das Viehhaus” in L&J edit., p. 17

54) <Hugo Häring>, p. 56

55) “Funktionelles Bauen: Gut Garkau/ Das Viehhaus” in L&J edit., p. 17

56) J. Posener, “Häring, Scharoun, Mies, and Le Corbusier”, p. 36; P. Blundell-Jones, <Hugo Häring>, p. 59 참고

라는 형태의 필연성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선택적이고 불충분하다. 헤링이 동선과 운동을 평면의 기계적인 결정 요소로 언급하긴 했으나, 사실상 그러한 기능은 선형적 형태로 된 건물에서도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형적 형태와 헤링의 배 형태 사이의 차이가 갖는 중요성은 근본적으로 유기적 건물에 대한 개념의 유무에 있는 것이다. 즉, 선형은 추상적인 시스템이며, 그 무한히 연장 가능한 그 기계적 속성은 농장의 고유성과 완결성, 유기적 전체성을 배려하지 않는다. 반면, 헤링의 배 모양은 외양간에 배치되는 황소와 젖소의 위치, 어린 송아지의 분만실과 사육실 등을 구성함에 있어 그 관계의 정체성을 형상화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8-10] 헤링은 1925년 소고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1952년의 인터뷰에서는 그의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나는 농장주인 건축주에게 소들이 먹이를 먹는 자연스러운 패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소들은 그들의 먹이 주위에 원형으로 모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42마리의 젖소들이 이루는 원형에서는 중앙 공간의 손실이 너무 크므로, 타원형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황소를 위한 하나의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 형태가 되었다.”⁵⁷⁾

위의 말은 헤링의 작업이 단지 해석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건축가 자신이 기능의 표현에 대한 상징적 영역을 탐구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즉, 외양간의 평면에서 황소의 자리가 배 모양으로 배열된 젖소 칸의 뾰족한 부분에 놓인 것은, 가축들의 우두머리로서 황소의 중요성 및 황소와 젖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표현을 발견하기 위한 헤링의 결정적인 체크치인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측면의 고려는 외양간의 축 구성이 이어지는 돼지 사육장과 마구간의 평면 구성, 그리고 농장주택 평면에서 보이는 식탁의 위치가 황소와 젖소 자리의 배열과 같이 북쪽으로 수렴되는 공간의 상징적 위계에서도 나타난다. 외양간 쪽의 건물들이 동물들의 공간적 위계를 상징한다면, 주택은 인간의 공간적 위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건물의 축 구성은 신고전주의적인 축(axis) 배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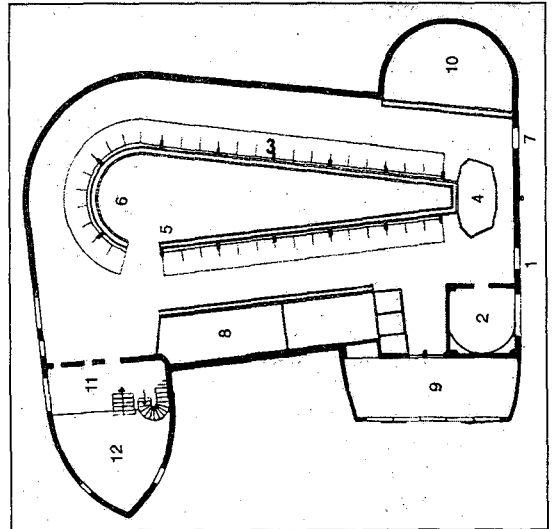


그림9. <가르카우 농장> 외양간 평면.

1. 젖소 입구 2. 낙농실 3. 젖소 칸 4. 황소 칸 5. 통로
6. 2층 다락 해치 7. 젖소 출구 9. 어린 수소실
10. 분만실 11. 사일로 지하 12. 건초실(경사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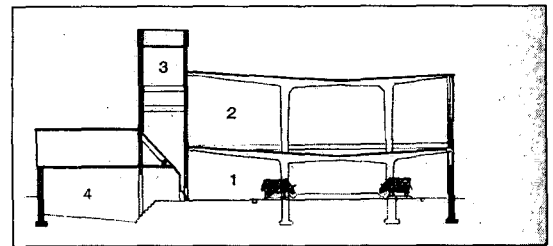


그림8. <가르카우 농장> 외양간 단면.

1. 젖소 칸 2. 다락 3. 사일로 4. 건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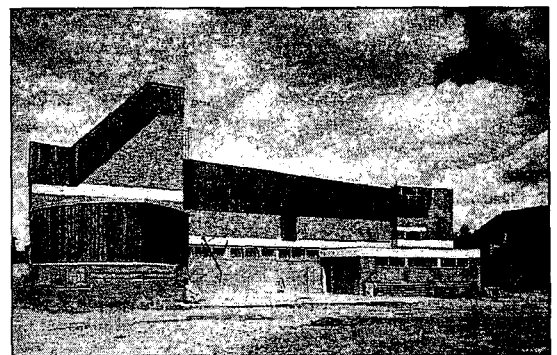


그림10. 외양간 남측 전경

57) extract from an interview with Häring of April 1952, published in <Baukunst und Werkform>, vol. 5, 1952. 4. (<Hugo Häring>, p. 60 재인용)

일견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 농장 단지의 배치 역시 전체적인 공간적 관계의 장소적인 해석을 보여주며, 추수와 경작, 곡물의 저장, 가축들의 사육 등을 위해 마차와 일꾼들이 움직이는 동선 속에서 농장에서의 삶이 수행되는 과정(Lebenserfüllung)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헤링은 가르카우의 배치를 통해 농장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계절과 주, 하루하루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장의 제의적(祭儀的) 의식체계를 자신의 시대에 당면한 근대적 표현 과제를 통해 재해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어법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위의 조건들이 1925년의 소고에서는 생략되었다고, 가르카우 농장의 작업은 이미 순수한 생물학적 유기체작업(Organwerk)을 넘어서 후기 형태작업(Gestaltwerk)으로의 진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건물 형태가 동물이나 인간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은유하는 관습적인 적용과도 틀리고, 명백한 지시성을 지향하는 기호의 문제와도 다르다. 단순히 건물의 기능을 알리는 것만이 목적이 라면 건물 밖에 간판을 세워두면 된다. 그러나 그의 외양간은 전적으로 실용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실증적이지도 않은 기능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재하며 형태 그 자체로서 서 있다.

4. 형태작업(Gestaltwerk)과 상징으로서의 'Gestalt'(1943-1954)

4-1. 형태의 비밀(Geheimnis der Gestalt)

앞서 살펴보았듯, 1920년대 헤링의 논문과 건축물에서는 그 형태의 의미에 대한 상징적 태도가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종전(終戰) 후 1946년 스투트가르트 공업학교에서 강연을 가진 「건축의 구조적 문제(Strukturprobleme des bauens)」⁵⁸⁾에서부터 이러한 사고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후기의 헤링은 그러한 관심의 심화를 '유기체작업'으로부터 '형태작업(Gestaltwerk)'의 발전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헤링이 상황조건과 형태화 과정의 내재적 통일성에 대한 탐구를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창조 과정에 대한 물음으로의 확장이다.

「평면계획의 업무(Arbeit am Grundriß)」(1951)⁵⁹⁾에서는, 그 자신이 전기와 후기 작업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평면설계 과정에서 환경조건에 따라 주거 공간을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배치시켜나가는 작업(organwerk)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삶(leben), 혹은 존재(wesenheit)에 일치하는 '형태작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한 '형태작업'에 의해 창조되는 공간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제한되는 기존의 유기체로서의(organhaft) 형태를 넘어서 삶에 참여하는 존재와 같은(wesenhaft, being-like) '형태(gestalt)'를 획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더 이상 다른 세계의 형태에 의한 추상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⁶⁰⁾

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과 게슈탈트, 그리고 신화와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연관성을 추론해내는 후기 헤링의 사상적 추이를 상징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 후기의 헤링은 '유기체작업'은 '형태작업'의 보다 높은 레벨로 발전하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형태의 창조는 기술적인 작업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화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고차원적인 형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직관의 힘과 명료성에 따른 영적 개념의 인도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그의 후기 저술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신(Gott)'과 '로고스(Logos)'란 단어이다.⁶¹⁾ 여기서 '신'은 언제나 창조의 관념과 사물의 질서인 '로고스'에 연결되어 있다. 헤링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직관력은 신의 질서인 로고스로 입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그것을 유지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 자신의 창조, 즉 '게슈탈트(gestalt)'를 더할 수 있다.

위의 맥락에서 게슈탈트에 관한 작업은 헤링에게 창조의 테마이자 신화적 주제였다. 초기 저술들에서 그는 형태를 지칭할 때 'gestalt'와 'form'을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그때에도 'gestalt'는 주로 '삶(leben)'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며 차별화되

59) H. Häring, "Arbeit am Grundriß", <Baukunst und Werk-form>, vol. 5, 1952 in L&J edit., pp. 76-77

60) Ibid., p. 77

61) 헤링은 프로테스탄트였고 이 단어들 역시 기독교 용어이긴 하나, 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秘敎的) 지식 전반에 대한 흥미로 볼 수 있다. (<Hugo Häring>, p. 179)

58) H. Häring, "Strukturprobleme des bauens", Vortrag in Ulm und an der Technischen Hochschule Stuttgart, 1946 in L&J edit., pp. 43-51

었다. 독일의 유기론 전통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으로서의 전체관(全體觀)⁶²⁾을 내포하며 '통일성 속의 다양성', '다(多)가 여전히 따로 보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의 관념적 형상을 설명하는 용어였다. 카시러가 말하는 상징으로서 예술의 감각적 형식과 헤링이 말하는 게슈탈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헤링은 이 같은 독특한 개념의 형태가 창출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기능적 상황조건에 로고스와 그 로고스를 인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의 직관적 창조력을 첨부한 것이다. 특히 "게슈탈트의 원리인 구조적·창조적 지식은 창조작업 속에 '드러나는(aletheia)' 실재들이지만, 인간의 작업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다"는 생각에서,⁶³⁾ 헤링에게 인간의 직관적 능력은 기능주의의 과학

적 서술로는 전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형태 창조 영역을 납득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이다.

그러나 헤링이 말하는 로고스나 영적 직관력이 어떠한 초월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신의 창조의 조력자가 되는 것은 오직 존재하는 사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는 실존적 차원에서이다. '삶에 참여하는 형태(gestalt)'의 언급에서 드러나듯, 그는 "인간은 오직 그들의 삶속에서만 창조작업과 관계하며, 이러한 가운데 자신이 그러한 작업의 일부임을 발견한다"⁶⁴⁾고 생각했으며, 이는 정신의 사유 기능이 오직 '물질적 담지자'를 통해서만 구체적 보편성으로 인식된다는 상징 원리에 근접한다.

헤링의 마지막 강연문 제목인 「형태의 비밀에 대하여(Über das Geheimnis der Gestalt)」(1954)는 게슈탈트의 신화적 차원에 대한 헤링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그는 현대가 개념적 사고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에 '이미지적 사고(Bilddenken)'가 현대의 새로운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가치를 통해 신화(mythos)는 그 도상(圖像)-언어 속에 이전의 시간에 존재했던 그 자신을 표현하며 각 문화의 시초를 드러내는 게슈탈트의 원형(原形)으로 재평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화적 형태는 과학적 사고만큼이나 가치 있는 기록이며,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고차원적 리얼리티의 증거이다."⁶⁵⁾ 따라서 본질적으로 "문화는 형태작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헤링은 '형태(gestalt)의 비밀'을 상징이 갖는 문화 창조의 힘으로 귀결지었다.

위와 같은 사고의 추이를 통해, 헤링의 '형태작업'은 자아가 삶의 과정(그리고 역사) 속에서 창조적 직관을 통해 신의 창조작업에 참여한다는 생각—즉, '자아와 세계, 그리고 신의 문제'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상징적 존재론⁶⁶⁾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지성의 고대적인 형식을 통해 창조적 직관의 비밀을 탐구함으로써, 역사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도출하려 했던 자신의 근대적 프로젝트를 한 문화의 내적 의미를 최초로 창조해내는 신화적 상징작업으로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62) 'gestalt'라는 독일어는 통상 영어로 'form', '형태'로 번역되며 본고에서도 편의상 'gestaltwerk'를 '형태작업'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게슈탈트'의 의미는 괴테(J. W. von Goethe)의 형태학 그리고 기계론(mechanism)과 대립되는 유기론(organism) 혹은 생기론(vitalism) 개념까지 소급되며, 직접적으로는 19세기말 오스트리아 철학자 크리스티안 폰 에렌펠스(C. von Ehrenfels)의 「On Gestalt Qualities」(1890)에서 정의된 게슈탈트의 형질(形質) 개념을 들 수 있다. 심리현상에서의 형질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그는, 어떤 현상이 게슈탈트성(性)을 갖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첫째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며, 둘째 개개의 요소를 모두 바꾸어도 그 성립의 관계적 측면이 유지되는 한 전체로서의 성질은 불변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1920년대 독일에서 대동한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은 그의 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학문으로, 지각 조건의 분석을 통해 '좋은 형태' 개념과 같은 미적 현상을 밝히는 데 공헌했다. 형태심리학의 미학적 적용에 대해서는 M. C. Beardsley,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pp. 542-545 참조

63) H. Häring, "Über das Geheimnis der Gestalt", Vortrag in der Kurhessischen Gesellschaft für Kunst und Wissenschaft, Kassel, 1954. 2. in L&J edit., p. 84. 헤링의 위와 같은 인식 방식은 카시러 외에도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의 「예술작품의 근원」(1935-1936)에서 존재자 속에 은폐되어 있는 본질 혹은 진리의 드러남(비은폐, Alétheia)을 예술적 속성으로 설명하는 방식과 종종 비교된다.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이 하나의 고유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고유한 진리(의미)를 담지하고 있다고 파악한 점에서 예술에 대한 동시대 상징 담론의 계열에 속하며, 실제 카시러와의 논쟁 가운데 그의 예술론의 영향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 (신용철,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아카데미, 2000, p. 185) 한편, 헤링이 말년에 하이데거의 철학을 접하고 종종 인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의 상징적 태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미 1920년대 초·중반 사상에 내재된 것이며, 후에 그가 사용된 어휘 또한 하이데거의 독특한 존재론적 서술법과는 다르다. (<Hugo Häring>, p. 183 참고)

64) H. Häring in <Hugo Häring>, p. 196

65) "Über das Geheimnis der Gestalt" in L&J edit., p. 84

66) <상징적 상상력>, p. 85

4-2. 1940년대 평면계획

헤링의 '형태작업' 사상은 실제 프로젝트보다는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정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나치즘의 억압과 전시 상황을 거쳐 1940-50년대 이후 실제적인 작업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탓도 있지만, 그의 후기 사상이 실제 디자인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윤리적 교육 사상에 가깝다는 점⁶⁷⁾에서도 실제 프로젝트에서 헤링의 이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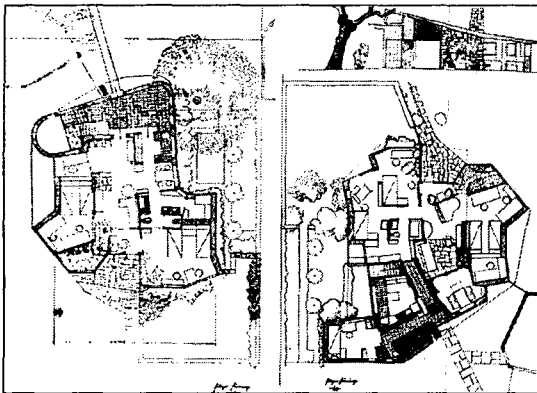


그림 11. 헤링, 1946년 주택평면계획들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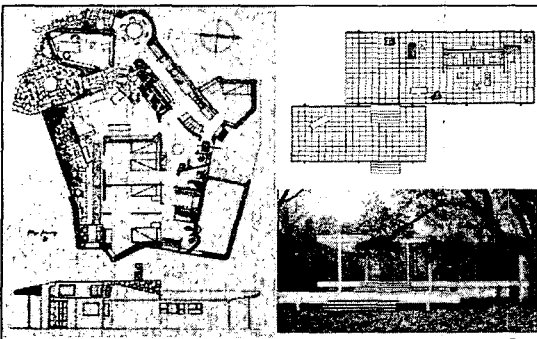


그림 12. 헤링의 1946년 주택평면계획(좌, 1:50)과 미스의 1951년작 <판스위스 주택>(우)

그렇더라도 그의 일련의 드로잉 작업들에서 '형태작업'의 면모들을 고찰할 수 있는데, 특히 헤링이 실제 수주가 거의 없었던 1940년부터 시작한 단독주택의 자유평면에 대한 연구는 그의 건강이 악화된 1953년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드로잉을

남 그의 후기 설계 작업의 특징을 보여준다.⁶⁸⁾ 특정 건축주가 없이 그려진 이 도면들은 매우 세부적인 스케일로 설계되어 가구의 배치나 재료의 선택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러한 구체적인 주거 기능의 상상을 통해 헤링은 감각적인 통일성을 지향하는 상징적 사고와 '삶에 참여하는 형태'로서의 '게슈탈트' 개념을 독특한 형태적 번역으로 드러내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12]의 예들을 「평면계획의 업무(Arbeit am Grundriß)」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유기체작업'을 추구하는 설계자는 주거의 과정 주위로 벽을 두르는 것이지 장방형 속에 주거 과정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계획에서 벽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끝나거나 건물이 장방형으로 마무리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자연의 법칙에 대한 반영은 각 공간의 앵글이 태양과의 적절한 관계를 상징하여 식물처럼 남향을 향해 열리고 동쪽에서 서쪽을 따라 회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설계자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거한 이 '유기체작업'에서 '형태작업'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가령 주택 본체를 구축하는 재료의 탐구는 기술적 여건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그 재료의 고찰을 통해 제공되는 경험과 삶의 질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⁹⁾

1946년 1:50의 스케일로 그려진 단층 주택의 평면계획과 동측 입면도에서 주목할 것은 먼저 재질 묘사와 가구배치, 바닥 마감 등을 통해 묘사되는 비상한 디테일이다. 도면에는 침대, 테이블, 의자, 위생설비뿐만 아니라 현관홀의 매트, 코트걸이, 홀 테이블에 있는 장갑, 주방의 식칼까지 그려져 있다. 남쪽 가장자리의 식물들은 온실과 같은 영역을 마련하며, 불규칙하게 깔린 돌바닥재는 건물에 의해 둘러싸이고 지붕으로 덮인 야외 테이블 영역에서 온실과 내부 난로영역까지의 영역을, 그리고 카펫은 침실의 영역과 그 밖의 주거실 공간 사이에서 경계를 표시한다. 벽의 두께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각 실의 벽은 창문, 벽장, 가구에 맞춰 특수한 치수를 가진고 있다. 이 같은 평면상의 디테일들은 근대적 주택의 새로운 사용 방법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주거의 행위를 고무시키기 위해 묘사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그

67) 그의 '형태작업' 사상을 드러내는 말년의 논고들은 대부분 독일 기술학교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강연문으로 쓰여진 것이다.

68) <Hugo Häring>, p. 151

69) "Arbeit am Grundriß" in L&J edit., p. 77

림 12]

여기에 위 도면들의 공간 구성은—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조와 기능별 영역 구분에 따라 각 공간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근대 이후의 여타 주거 평면계획들과 달리—자녀를 위한 취침 및 놀이·공부 기능이 경험적 측면에서 한 공간에 수행되는 것으로 설정된 점이나, 각 침실들이 다른 공간들과 분리되지 않고 단지 영역적 경계만 표시된 채 개방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서, 헤링은 상징의 유기적 성격을 삶의 태도에까지 투영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의 주거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헤링의 의미 탐구의 방식은 다시 한 번 동시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스 역시 시대적 상징으로서의 건축을 창출하려 했으며, 의미의 영역을 추구했다.⁷⁰⁾ 또한 당대 근대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헤링과 미스는 평면의 새로운 자유와 명확한 구조로 인식되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근대 중산층 가정의 이상적인 삶을 형태화 하려 했다. 그러나 헤링의 사상은 더 나아가 의미란 그 이상의 무엇을 함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반면, 미스가 선택한 중성적 공간은—적어도 헤링이 보기에—삶과 존재의 감각을 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며 규범적으로 부과된 형식이었던 것이다.⁷¹⁾ [그림 12] 즉, 헤링의 평면계획은 어떠한 미학적 경험도 그 집이 우리에게 순용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줌으로써, 의미(내용)가 없이는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징화의 특성을 실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結: '신건축(Neues Bauen)' 사상의 상징론적 측면과 그 의의

건축의 기능, 혹은 성취 조건의 표현에 대한 헤

링의 유기적 그리고 상징적 개념은 통시적으로나 공시적 배경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능이 단순히 물질적, 실증적 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19세기 쟬퍼(G. Semper)나 비올레 르 뒤크(Viollet-le-Duc)와 같은 과학적 유기주의자들조차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축 형태의 상징적, 신비적 본성에 대한 자각은 푸긴(A. W. N. Pugin)이나 코올리지(S. T. Coleridge), 러스킨(J. Ruskin)의 종교적 유기주의에서도 발견된다.⁷²⁾ 또한 블룬델-존스가 합리주의로 분류한 발터 그로피우스(W. Gropius, 1883-1969)가 그의 작품 <테사우 바우하우스>(1926)를 통해 전체적인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공간과 그 인간적인 내용, 사물의 본질에 근거한 재료와 디테일의 사용, 표준화와 합리화에 대한 기능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⁷³⁾은 실상 헤링의 '신건축'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운동성과 형태의 상호 작용 및 통합에 관심을 기울인 그의 유기적 사상은 미국 망명 이후로는 그의 협력자들에게서 좀처럼 이해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루이스 면포드나 브루노 제비와 같은 이들이 라이트나 알바 알토(A. Aalto) 등의 유기적 건축에서 발견한 가능성은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의 제반을 주거와 도시, 공간의 배열에 반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원리였으며,⁷⁴⁾ 기능의 의미를 문화적, 인간적 목적으로 확대시킨 새로운 상징적 기능주의로서의 가치였다. 특히, 면포드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유기적 기능주의의 잠언을 과학적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래의 라마르크적 의미로 복귀시킴으로써, 기능주의의 대안적 가치를 재발견했다.⁷⁵⁾ 본고에서 행한 헤링의 '신건축'에 대한 상징론적 고찰 역시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72) 이들을 각기 종교적 유기주의(Religious organicism), 과학적 유기주의(Scientific organicism)로 분류하여 분석한 입장은 Caroline van Eck, <Organicism in nineteenth-century architecture: An inquiry into it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Architecture & Natura Press, Amsterdam, 1994 참조

73) Walter Gropius, *The New Architecture and the Bauhaus*, trans. P. Morton Shand,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85(1965)

74) Bruno Zevi, <Toward Organic Architecture>, Faber & Faber Limited, London, 1949(1944), p. 76

75) Luis Mumford, <Art and Technics> (<예술과 기술>, 김문환 역, 민음사, 1999(1952), pp. 150-151 참고)

70) "건축은 사실에 의존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분야는 의미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Mies van der Rohe, "On Technology", <L'architecture d'aujourd'hui>, no. 79. (C. Nøberg-Schultz, <Archi-itecture: Meaning and Place>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진경돈·이정국 공역, 미건사, 1995(1986), p. 184 재인용))

71) 헤링은 하인리히 라우터바흐와의 서신에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Farnsworth House>(1951)에 대해 위와 같은 소감을 적었다. <Hugo Häring>, pp. 157-158 참고

기호학적으로 분석할 때, 근대건축운동은 19세기 말 관습적 기호체계로 정착한 보자르의 어휘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위한 새로운 표현 체계를 창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징적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으며,⁷⁶⁾ 헤링의 유기적 기능주의는 이를 최종적인 논리로 발달시킨 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연구는 이들이 생물학적, 기계적 유추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얻으려 했던 형태와 구조 원리들이 사실은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⁷⁷⁾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약속하는 근거로 파악했던 객관적이고 자연적인 기능들이 실제로는 문화적 의미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그 상징적 속성을 확인시켜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러한 근대건축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축을 기호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한 운동이었다. 로버트 벤추리(R. Venturi)는 형태와 기능 양측에서의 복잡성(complexity)을 재창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⁷⁸⁾ 그의 '상징으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symbol)'은 라스베가스의 고속도로 연변에서 발견되는 '표상적(representational)' 기호의 성격⁷⁹⁾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의미의 차원을 기호와 습관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렸으며, '장식된 창고(decorated shed)'라는 개념 역시 의미와 형태의 기호적 분열을 체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고 있다.⁸⁰⁾ 그러나 본고에서 헤링의 '신건축'을 통해 고찰한 상징적 속성은 벤추리적 오해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본고에서 전술한 상징의 여러 특성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죽어 있으며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 풍요롭고 생생한 의미를 담지한 총체적 상

(像)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진 상징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창조방식인 상징은 기존의 낡은 상징을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게끔 새로이 적응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는 새로운 표현방식, 즉 상징 내에서의 새로운 혁명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하는 건축 역시 '구체화(concretize)', 즉 문화적 가치에 대한 형태 부여라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⁸¹⁾ 기능을 외시할 수도 있고, 그 기능의 역사적, 미학적, 인간학적인 특정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도 있는 건축의 이 같은 내포적 혹은 상징적 기능이 덜 유용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상징성은 좁은 의미의 기능으로 직접 규명될 수 없는, 한 사물의 사회적 사용을 전달하는 건축의 또 다른 본질적 기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헤링의 '신건축'에서 드러난 상징적 측면과 그러한 상징작용을 통해 수행되는 여러 가치들을 숙고할 때, 헤링의 초기 유기적 기능주의 건축관이 그 상징적 속성으로 인해 실제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문제는 드러났을지언정, 상징적 속성 그 자체가 오류인 것은 아님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⁸²⁾ 면포드가 주장했듯,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는 유기적 기능주의는 그 기능을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이는 편협한 해석을 벗어나 날 때, 그 상징적 가치를 새로이 조망할 수 있다.

따라서 헤링의 '신건축' 또한, 초기 '유기체작업'의 유기적 기능주의 사상에 내재되어 있었고 그 사상적 진전에 다름 아닌 후기 '형태작업'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으로서의 건축적 접근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관습적 틀을 벗어나는 신화적 창조와 문화의 동질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로서, 그리고 객관적 합리성을 보다 포용적인 관점으로 통합함으로써 추상화로 인한 가치의 빈곤화를 회복할 수 있는 창조적 인식론으로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76) Juan P. Bonta,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건축의 표현체계>, 서수석 역, 기문당, 1999, p. 44 참고

77) 건축에서의 다양한 생물학적 유추 개념과 그 오류를 지적한 대표적 연구로는 Philip Steadman, <The Evolution of Desig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1979 참조

78)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1966) in <The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Ed. Kate Nesbit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p. 74 참고

79) Robert Venturi & Denise S. Brown, "A Significance for A&P Parking Lots of Learning from Las Vegas" (1968) in Ibid. pp. 312-313 참고.

80)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p. 187

81) "형태가 없음(without form)은 곧 비어있음(void)이다...가치는 그것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 Concept of Function in Twentieth-Century Architectural Criticism>, p. 78)

82) 근대건축운동의 실제적인 오류는 그들이 새로운 문화적 관념을 상징화하면서, 동시에 그 창조적 국면을 영속화하려 하려 한 점에 있다. 그러나 상징은 창조적 기능과 동시에 문화적 동질화라는 사회적 기능을 거쳐 기호화될 수 있다. 근대건축운동의 단명(短命)은 이 점을 거부하려 한 데 기인한다. (<건축의 표현체계>, p. 59 참고)

<참고문헌>

1. 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92(1960)
2. Y. Basin, *현대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민형원 공역, 예전사, 1996(1979)
3. M. C. Beardsley, *미학사*, 이성훈·안원현 공역, 이론과 실천, 1995(1966)
4. A. Behne,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rans. M. Robinson, The Getty Research Inst.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6(1926)
5. P. Blundell-Jones, *Hugo Häring: The Organic versus the Geometric*, Edition Axel Menges, London, 1999
6. J. P. Bonta, *건축의 표현체계*, 서수석 역, 기문당, 1999
7. J. C. Bürkle, *Hans Scharoun*, Artemis, London, 1993
8. E. Cassirer,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화철학서설*, 최명관 역, 서광사, 1988(1944)
9. U. Conrads,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trans. M. Bullock,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70(1964)
— H. Häring, 「Form der Leistungs-Erfüllung」, 1932
— H. Meyer, 「Bauen」, 1928
10. G. Durand, *상징적 상상력*, 진형준 역, 문학과 지성사, 1994(1964)
11. C. van Eck, *Organicism in nineteenth-century architecture: An inquiry into its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Architecture & Natura Press, Amsterdam, 1994
12. H. Greenough, *형태와 기능: 예술·디자인·건축에 대한 소견*, 이종진 역, 기문당, 1987(1957)
13. W. Gropius, *The New Architecture and the Bauhaus*, trans. P. M. Shand,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85(1965)
14. C.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Penguin Books, 1987(1973)
15. J. Joedicke, *20세기의 건축역사*, 김경환·이병욱 공역, 이집, 2001(1998)
16. J. Joedicke & H. Lauterbach, Edit., *Hugo Häring: Schriften, Entwürfe, Bauten*, Karl Krämer Verg Stuttgart, 1965
— H. Häring, 「Wege zur Form」, <Der Form>, vol. 1, 1925. 10.
— _____, 「Probleme des Bauen」, <Der Neubau>, vol. 17, 1924. 10.
— _____, 「Funktionelles Bauen: Gut Gakau/Das Viehhaus」, <Die Form>, vol. 1, 1925. 10.
— _____, 「Strukturprobleme des Bauens」, Vortrag in Ulm und an der Technischen Hochschule Stuttgart, 1946
— _____, 「Arbeit am Grundriß」, <Baukunst und Werkform>, vol. 5, 1952.
— _____, 「Über das Geheimnis der Gestalt」, Vortrag in der Kurhessischen Gesellschaft für Kunst und Wissenschaft, Kassel, 1954. 2.
17. S. K. Langer,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고려원, 1984
18. L. L. Ligo, *The Concept of Function in Twentieth-Century Architectural Criticism*, UMI Research Press, Michigan, 1984(1974)
19. N. G. Menocal, *Architecture as nature: the transcendentalist idea of Louis Sulliva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ondon, 1981
20. L. Mumford, *예술과 기술*, 김문환 역, 민음사, 1999(1952)
21. K. Nesbitt, Edit., *The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 R.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1966
— R. Venturi & D. S. Brown, 「A Significance for A&P Parking Lots of Learning from Las Vegas」, 1968
22. C. Noberg-Schult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진

- 경돈·이정국 역, 도서출판 미건사, 1995(1986)
23. W. Pehnt, *표현주의건축*, 박민철 역, 도서출판 국제, 1991(1973)
24. J. Posener, 「Häring, Scharoun, Mies, and Le Corbusier」, *From Schinkel to Bauhaus*, Lund Humphries for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London, 1972
25. P. Steadman, *The Evolution of Desig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1979
26. B. Zevi, *Toward Organic Architecture*, Faber & Faber Limited, London, 1949(1944)
27. E. R. de Zurko, *기능주의이론의 계보*, 윤재희·진연순 공역, 세진사, 1988(1957)
28. 신응철,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아카데미, 2000
29. 민혜란, 「E. 카시러의 예술상징형식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논문, 1987
30. 황보봉, 하재명, 「바이센호프 전시회에 나타난 독일근대건축의 구조적 갈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7호, 2001년 7월
31. 황보봉, 「휴고 헤링(1882-1958)의 건축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8호(통권 154호), 2001년 8월
32. _____, 「휴고 헤링의 유기적 건축과 이론 창조 의 문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8권 10호(통권 168호), 2002년 10월
33. 「London, Hugo Häring- Secret of Form」, <Bauwelt>, vol. 92, no. 11, 2001.

A study on Hugo Häring's Theory of 'Neues Bauen' and its Symbolic Meaning

Kim, Kyoung Jin

(Graduate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Yim, Seock Ja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s

Hugo Häring(1882-1952) belonged to that special generation of architects born in the 1880s which became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Movement in the 1920s as W. Gropius, Mies van der Rohe and Le Corbusier, etc. Although he have been overlooked by many historian, He was a key figure of the Modern architecture and as the main theorist for Organic stream in German architecture. He is well-known for his theory of 'Neues Bauen(New Building)', the organic functionalism that is epitomized as the design process from the inside outwards, starting with the life-processes of dwelling. So he argued that the builder must become aware of the life process his building is to serve, and he should not impose a form but try to find the form. These concepts are expressed well in his key-words, the 'Organwerk(organ-work)' and 'Leistungsform(form as achievement)'s. Häring's theory can be found in the short early essay, "Wege zur Form(approaches to form)" of 1925.

But His concept of 'function' is based on the speciality and individual identity that concerned him from the start, not purely pragmatic aspects. After 1940s his theory moved increasingly in this direction. He defined this as the transition from 'Organwerk' to 'Gesaltwerk', from mere anatomy to essence, being, personality, life. It suggest that Hugo Häring's idea of Gestalt is a dimension of mystical or symbolic meaning. This paper is about the way in which this theoretical transition can be parallel with contemporary philosophers as E. Cassirer's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and M. Heidegger's phenomenology. And the key example of this viewpoint is <Gut Garkau>(1921-1926) near Lübeck in Germany, with its 'cowshed' of pear shaped plan devised around the requirements and rituals of farm. This study presents the symbolic conception of Hugo Häring's theory can propose the ability of a symbolic intuition as a view that re-integrate technical thinking with knowledge of other kinds beyond the immediate material.

Keywords : Hugo Haring, Neues Bauen, New Architecture, Organic Functionalism, Symbol
